



'人本 디자인도시 광주' 선포 광주시는 18일 오후 시청 문화광장에서 박광대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를 인간중심의 디자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하는 '인본(人本) 디자인도시 광주 선포식'을 열었다. 시는 이날 시내 곳곳에 설치될 벤치, 플라드, 자전거보관대,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시제품 8종을 공개했으며, 축하음악회도 함께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눈덩이'

광주, 올 320억...2007년 보다 60% 늘어
유가상승 등 원인...정부 지원 확대 절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광주시의 지원금이 매년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 298억 원보다 7.7%(23억 원) 늘어난 3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도입 첫해인 2007년 196억 원에 비하면 60% 이상 큰 폭

으로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인해 버스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상승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시내버스 요금은 2006년

이후 3년째 동결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이용객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내버스와 무료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마을버스 등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난 2006년 46만 2천297명에서 올해 49만6천59명으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료 환승 도입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크게 향상됐으나, 시민의 상당수가 자가용 이용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탓이다. 광주는 물론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대구·대전·부산 등 타 광역시 역시 매년 수 백억 원에서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지원금액은 대전 342억 원, 대구 744억 원, 부산 762억 원, 서울 1천894억 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로 구성된 준공영제제도개선추진협의회는 정부가 분권교부세로 10%를 지원해 준 공영제 지원금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5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병렬 시 대중교통과장은 "준공영제 도입은 중앙 정부가 적극 권장해 추진한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공기업 취업 전국 7위

5년간 134명 합격 ... 조선대는 68명 16위

전남대와 조선대가 공기업 취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용석 국회의원이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5년 동안 총 134명이 합격해 전국 대학 중 종합 7위를 차지했으며, 조선대는 총 68명이 취업해 16위에 올랐다.

조사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이다. 공기업 취업 1위는 고려대(185명)였으며 2위는 서울대(183명), 4위 경북대(159명), 10위 성균관대(98명), 17위 경희대(66명), 20위 건국대(64명), 24위 동국대(54명), 31위 서강대(46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대는 특히 한국전력에 90명이

나 합격해 전국 대학중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했다. 이 밖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강원랜드 등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에 각각 30명 이상씩 취업한 것을 비롯해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출보험공사 등에 입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중유통 생수 7개 제품 잠재적 발암물질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생수) 10개종 1개 가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에서 국제기준(0.01mg/l)을 초과한 0.0116~0.0225mg/l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 조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호남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크게 줄어 올 82건...작년 비 33% 감소

올해 상반기 호남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호남고속도로를 비롯, 서해안·고창~담양·남해·익산~장수·88·무안~광주선 등 호남 지역 7개 고속도로(590.89km)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2건)에 비해 32.8%(40건) 감소했다. 또 사망자 수는 모두 6명으로, 1년 전(16명)보다 62.5%(10명)나 줄었다. 유형별로는 과속운전이 27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 18건(22%) ▲핸들 과대 조작 14건(17.1%) ▲전방주시태만 12건(14.6%)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 원인은 사고다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갓길 주차 차량에 대한 무료 견인 서비스, 임시휴게소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및 의식 개선에 노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01시 45분 달질 16시 11분

비 기다리는 구름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지역도 있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하림 21/30°C	
목포	하림 21/27°C	
여수	하림 21/23°C	
완도	하림 19/26°C	
구례	하림 20/29°C	
해남	하림 20/27°C	
장흥	하림 19/27°C	
고흥	하림 18/25°C	
순천	하림 21/26°C	
영광	하림 20/29°C	
진도	하림 20/27°C	
전주	하림 21/31°C	
남원	하림 19/30°C	
옥산도	하림 19/24°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목포 10:28 23:29	04:07 16:13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5m	여수 05:38 18:31	11:50 --:--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6	21/27	21/28	20/30	20/30	20/30



전남 자율형 사립고 신청 '0'

재정여건 열악 때문 전남지역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18일 "최근 일 반계 사립고 47곳을 대상으로 지정 신청을 받았으나 한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과 제주 등에서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다. 도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신청 여건을 갖춘 학교가 극

히 제한적인 데다 대부분 법인이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광주 근교나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시지역을 제외하곤 기준 규모인 4학급(720명)을 채우기 도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3배 수준인 납입금도 농어촌 지역 학부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납입금의 3%(도 지역)를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학생 선발권 제약 등도 신청 기피의 주

된 이유로 풀이됐다. 도 교육청은 애초 신청 명문으로 떠오르는 광주 근교 일부 학교와 도시지역 사립고 등 10여 곳을 신청 후보로 염두에 뒀으나 결국 무산됐다. 자율고는 수업 일수 감축, 교육과정 자율 편성, 교장공모제, 산학 겸임교사 임용 등 학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교고 표준화 무력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남구, 강제추행 공무원 중징계 요구

여성단체 '직위해제하라' 남구에 따르면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남구는 통보받은 재판결과를 토대로 지난 17

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를 중징계 의결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구청 간부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간부를 즉시 직위해제 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스바겐 공식딜러

(주)지오희하우스 광주서비스센터

폭스바겐 전 차종 하계 점검 실시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1-1

문의: 010-8200-1111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인 3일 89,000원

▶ 제주 2박3일 패키지 (89,000원)

- 제주도 2박3일 패키지 (89,000원)
- 제주도 2박3일 패키지 (89,000원)
- 제주도 2박3일 패키지 (89,000원)

문의: 064-744-1109